

## “윤석열 선전포고에 투쟁으로 맞선다”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2022년 투쟁 선포 ... 금속노조, 20만 총파업 성사 다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자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연맹들이 3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년 투쟁 선포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곧 들어설 정부를 향해 ▲노동계 요구를 반영한 노동 중심 국정 운영 ▲노동·사회 정책 전면 전환 ▲차별 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철폐와 질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다. 이날 단위노조 대표자 1,5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는 윤석열 당선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선택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 등 최근 밝힌 반노동 기조에 맞서, 2022년 투쟁을 선포하는 대회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밝히기 위해 모였다”라며 ▲이명박 사면 ▲청와대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 등 노동자와 서민은 안중에 없는 당선자의 행보에 일침을 가하면서 대회사를 시작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의 임금과 최악의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죽음마저 받아들이라는 윤석열의 선전포고에 맞서 민주노총은 당당히 투쟁으로 맞선다”라며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자”라고 호소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산업전환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노조할 권리 쟁취 ▲청년실업 문제 해결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재벌·대기업 규제 강화 ▲교육, 의료, 교통, 돌봄 등 공공성 강화 ▲지주권 쟁취와 한반도 평화 보장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요구를 열거하며, “투쟁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자”라고 호소

했다.

이병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사업장이다”라며 “현대제철은 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판결이 사내하청 노동자들 손을 들어

주자 ‘자회사’를 설립해 폭력적으로 불법파견의 흔적을 감추려 하고 있다”라며 “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판결이행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현대제철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사무처와 노조 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구미지부, 대구지부, 경주지부, 포항지부, 울산지부, 부산양산지부, 경남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 등 310여 명이 참석해 2022년 투쟁 승리와 20만 총파업 성사를 위한 결의를 북돋웠다.

# “정의선 교섭 나와라, 끝장 보자”

현대차·기아차 6개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 ... 대법원, 불법과건 판결 공개고 현대차는 증거 인멸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가 3월 24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불법과건 범죄집단 현대자동차그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대법원으로 이동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연달아 열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자동차는 두 차례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한 34건의 불법과건 법원판결, 현대자동차 하연태 사장·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불법과건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24일 양재동과 서초동 투쟁을 시작으로 2022년을 불법과건 사내하청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수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해 고혈을 뽑아 부를 축적했다”라고 규탄했다. 위원장은 “정의선 회장은 법원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초법·불법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올해 투쟁 목표로 ▲대법원판결에 따른 기존 현장 직고용 ▲정의선 등 불법과건 범죄 경영진 처벌을 제시했다. 위원장은 직고용 결과 창원, 울산으로 갈라진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사례를 들며, ‘기존 현장으로 직고용’을 특별히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전체 투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밝혔다”라며 “여름 20만 총파업과 노동중심 산업전환으로 불법과건 악순환 고리 끊어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홍선 울산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20년 불법과건 끝장내자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현대차 자본은 오늘 아침 주주총회를 했다. 배당금 챙기면서 정규직 전환할 돈 없다고 20년 넘게 방치한 정의선을 끝장 투쟁으로 감옥에 보내자”라고 일갈했다.

유홍선 지회장은 “울산 동지들은 다음 주 회의를 통해 대법이든, 양재동이든 인수위 앞이든, 농성장을 설치하려 한다. 감옥 가든지, 정규직 되든지. 끝장 투쟁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결의했다.

신성호 기아자동차화성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법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정규직”이라며

“올해 6개 지회가 모두 뭉쳐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 정의선과 교섭해 이 투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불법과건 대법원판결을 촉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대법원에 도착한 금속노동자들은 “재벌 대기업이 산업현장에서 20년 넘게 불법고용·불법과건을 사용하는데도, 사법부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다”라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금속노동자들은 “대법원이 2017년 2월 올라간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과건 사건을 6년째 들고만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범죄행위 사죄·시정은커녕 범죄 흔적 지우기에 몰두해 왔다”라며 법원의 판결지연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동자들은 “대법원은 판결지연으로 재벌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